



1

인협, 인쇄문화역사관 이전 및 기자간담회 전시, 교육, 체험을 함께 하는 입체적 공간 인쇄문화산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기대

인쇄문화역사관이 리뉴얼공사를 마치고 명실상부하게 인쇄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최근 2개월여에 걸친 냉난방 설비 교체 공사와 인쇄문화역사관 이전 공사를 마치고 이전개관식을 가졌다. 1차로 거행된 이전개관식에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충원 회장,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명예회장, 민재기 전회장, 허철중 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인협 유창준 전무가 새롭게 리뉴얼된 회관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2차로 거행된 회관 이전개관식에는 김남수 회장을 비롯, 민창준 부회장, 김국 부회장, 이순석 부회장, 이광재 이사, 신병태 감사, 김영철 장학위원장, 리우식 미디어정책위원장, 이국홍 국제경쟁력 강화위원장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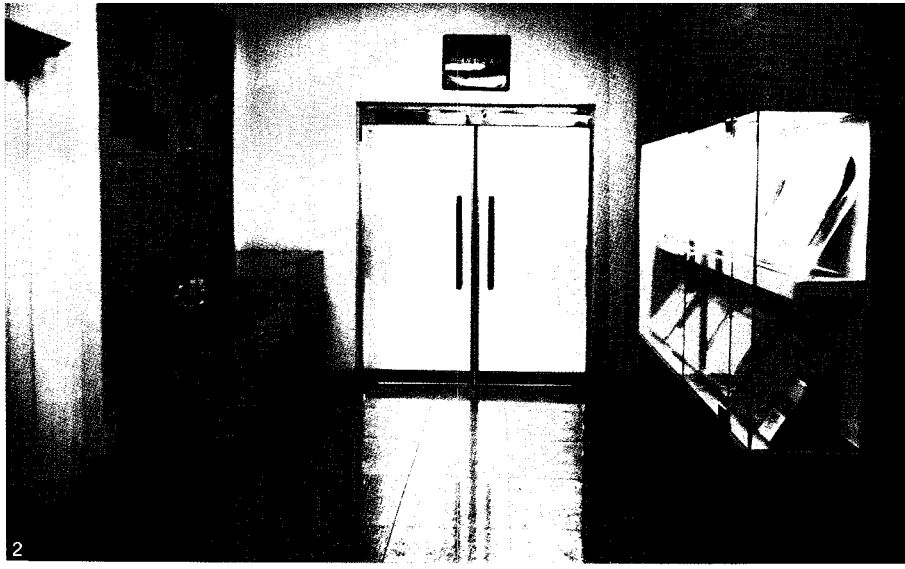
김남수 회장은 인쇄문화역사관의 이전개관을 맞아 “인쇄문화산업의 중심인 인쇄문화회관을 출입할 때마다 명성에 비해 2%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쇄문화의 메카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인쇄업계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주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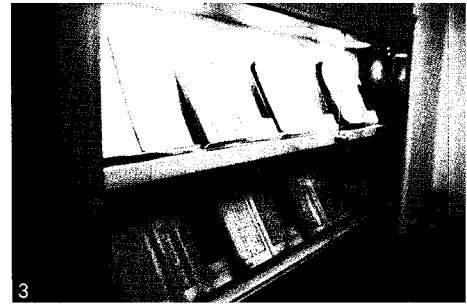
인쇄문화회관은?

지난 1987년 당시 인쇄인들의 중지를 모아 수년간의 모금과 회관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건립되었다. 이후 대한인쇄문화협회 사무국이 자리했으며 국고지원과 민자로 인쇄문화역사관을 개관하면서 인쇄문화산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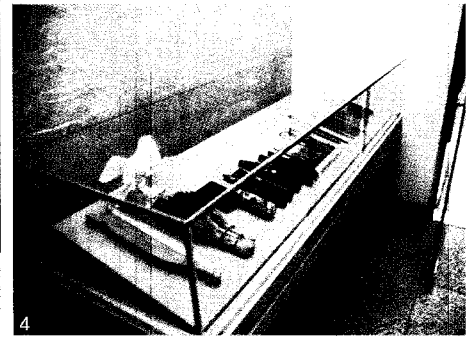
현재는 인쇄문화역사관, 인쇄문화교육관을 통해 빛나는 우리나라의 고인쇄문화를 홍보하는 장이 되었으며 국고지원으로 이뤄지는 인쇄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쇄업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 장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협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 사업 설명회 등을 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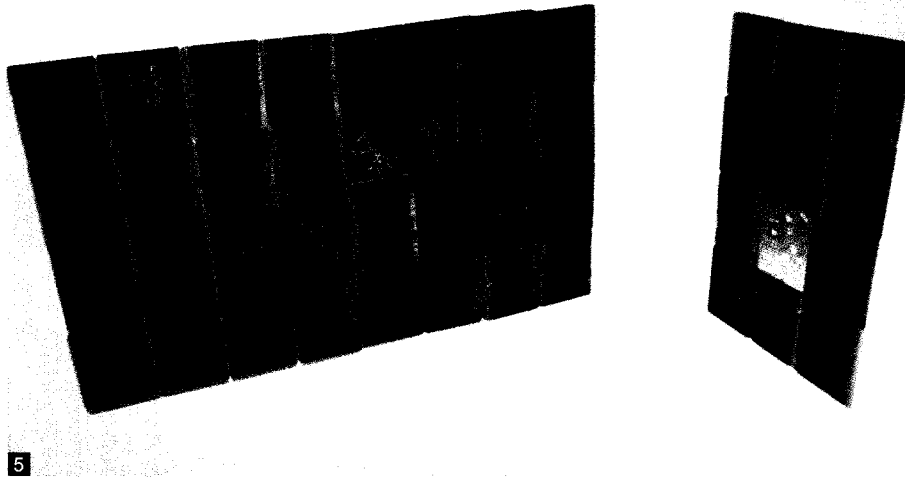
2



3



4



5

1. 대한인쇄문화협회 테이프커팅식에 참여한 원로자문위원들
2-4. 말끔하게 리뉴얼된 지하1층 로비
5. 활자를 만드는데 쓰인 작업도구들

인쇄문화회관은 이번 리뉴얼공사를 통해 한층 달라진 모습으로 인쇄업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보다 높아진 위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인쇄문화역사관

지난 2003년 12월에 인쇄문화회관 5층에 100여 평 규모로 꾸며진 인쇄문화역사관은 국비와 민자 수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되었다. 인쇄문화역사관은 활자 역사를 체계화하기 위해 기획, 조성되었다. 주요 전시물로는 재미자 등 활자 56판, 고서 및 영인본 90권, 활자 이전의 자료 15점, 금속활자 제작과정 디오라마 1세트, 활자 부조물 52개, 활자책 1세트, 미래의 서체 1세트, 조판·인출·제책 도구 30여 점, 근현대인쇄기기 13개, 시연기기로 한지제작 도구 1세트, 금속활자 2세트, 목판 1세트를 갖추고 있다.

인쇄문화역사관은 활자 부문에 많은 역점을 두고 전시되어 고려시대부터 개발되었던 활자를 대부분 복원 또는 복제하여 그 활자로 인쇄한 책과 함께 전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포활자(바가지활자)와 도활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활자로 국내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개만 소장되어있는 고려 '복' 자도 복원돼 전시했다.

개관 당시 인협에서는 인쇄문화역사관을 단순히 '보여주는' 장소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인쇄의 발자취를 남겨두는 자료실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학문적 연구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기능에도 관심을 둔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리뉴얼은 건립 초기의 취지에 부합되면서 회관 전체를 전시와 교육,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켰기 때문에 인쇄문화역사관의 단순이전이 아닌 발전적 이전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